

보도시점 2023. 9. 19.(화) 18:00
(국제엠바고)

배포 2023. 9. 19.(화) 16:00

경제협력개발기구, '23년 한국경제 성장률 1.5% 전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9.19일(화) 11:00(프랑스 파리 기준, 한국시각 18:00, 국제엠바고)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오늘 발표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매년 2회의 본전망(6월11월 OECD 회원국 대상), 2회의 중간전망(3월9월 G20 대상)을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미국, 일본, 브라질 등의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상반기 성장률을 반영하여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상향조정('23년 6월 2.7 → 9월 3.0%)했으나 긴축영향 가시화, 기업·소비자 심리 하락, 중국 반등 효과 약화 등으로 내년도 성장은 둔화('24년 6월 2.9 → 9월 2.7%)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한국의 성장률은 '23년 1.5%, '24년 2.1%로 6월 전망 수준을 유지하였다.

글로벌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으나, 비용압력과 일부 부문의 높은 마진 등으로 근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주요 20개국(G20) 기준 '23년 6.0%, '24년 4.8%로 점차 하락('22년 7.8%)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의 물가 오름세(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23년 3.4%, '24년 2.6%로 6월 전망 수준을 유지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세계경제의 하방위험(하방리스크)이 여전히 크다고 진단하였다. 국제(글로벌) 금리인상의 역효과가 예상보다 강할 수 있고, 물가 오름세(인플레이션)가 보다 장기화될 경우 추가 긴축이 요구되면서 금융부문의 취약성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원자재 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 예상보다 급격한 중국경제 둔화 소지 등도 주요 위험(리스크)으로 언급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통화정책의 경우 내재된 물가 오름세(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었다는 명확한 신호가 있을 때까지 제약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재정정책의 경우 정부부채 상환 증가, 고령화·기후변화·국방 등 지출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여력 확충 노력과 신뢰할만한 중기 재정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노동·상품시장 장벽 철폐, 기술개발 강화 등 공급측 구조 개혁과 함께 국제(글로벌) 교역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고하였다.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책임자	과 장	이승한 (044-215-2730)
		담당자	사무관	김선익 (044-215-2733)

참고 1

OECD 「'23.9월 중간경제전망」 성장을 전망 (G20국가)

(%, %p)	'22년	'23년 전망			'24년 전망		
전망시점		'23.6월	'23.9월	조정폭	'23.6월	'23.9월	조정폭
전세계	3.3	2.7	3.0	+0.3	2.9	2.7	△0.2
G20	3.1	2.8	3.1	+0.3	2.9	2.7	△0.2
유로존	3.4	0.9	0.6	△0.3	1.5	1.1	△0.4
호주	3.7	1.8	1.8	0.0	1.4	1.3	△0.1
캐나다	3.4	1.4	1.2	△0.2	1.4	1.4	0.0
독일	1.9	0.0	△0.2	△0.2	1.3	0.9	△0.4
프랑스	2.5	0.8	1.0	+0.2	1.3	1.2	△0.1
이태리	3.8	1.2	0.8	△0.4	1.0	0.8	△0.2
스페인	5.5	2.1	2.3	+0.2	1.9	1.9	0.0
일본	1.0	1.3	1.8	+0.5	1.1	1.0	△0.1
한국	2.6	1.5	1.5	0.0	2.1	2.1	0.0
멕시코	3.9	2.6	3.3	+0.7	2.1	2.5	+0.4
튀르키예	5.5	3.6	4.3	+0.7	3.7	2.6	△1.1
영국	4.1	0.3	0.3	0.0	1.0	0.8	△0.2
미국	2.1	1.6	2.2	+0.6	1.0	1.3	+0.3
아르헨티나	5.0	△1.6	△2.0	△0.4	1.1	△1.2	△2.3
브라질	3.0	1.7	3.2	+1.5	1.2	1.7	+0.5
중국	3.0	5.4	5.1	△0.3	5.1	4.6	△0.5
인도	7.2	6.0	6.3	+0.3	7.0	6.0	△1.0
인도네시아	5.3	4.7	4.9	+0.2	5.1	5.2	+0.1
러시아	△2.0	△1.5	0.8	+2.3	△0.4	0.9	+1.3
사우디	8.8	2.9	1.9	△1.0	3.6	3.1	△0.5
남아공	1.9	0.3	0.6	+0.3	1.0	1.1	+0.1

참고 2

OECD 「'23.9월 중간경제전망」 Inflation 전망 (G20국가)

(%, %p)	'22년	'23년 전망			'24년 전망		
전망시점		'23.6월	'23.9월	조정폭	'23.6월	'23.9월	조정폭
G20	7.8	6.1	6.0	△0.1	4.7	4.8	+0.1
유로존	8.4	5.8	5.5	△0.3	3.2	3.0	△0.2
호주	6.6	5.4	5.5	+0.1	3.2	3.2	0.0
캐나다	6.8	3.5	3.6	+0.1	2.3	2.4	+0.1
독일	8.7	6.3	6.1	△0.2	3.0	3.0	0.0
프랑스	5.9	6.1	5.8	△0.3	3.1	2.9	△0.2
이태리	8.7	6.4	6.1	△0.3	3.0	2.5	△0.5
스페인	8.3	3.9	3.5	△0.4	3.9	3.4	△0.5
일본	2.5	2.8	3.1	+0.3	2.0	2.1	+0.1
한국	5.1	3.4	3.4	0.0	2.6	2.6	0.0
멕시코	7.9	5.9	5.4	△0.5	3.7	3.9	+0.2
튀르키예	72.3	44.8	52.1	+7.3	40.8	39.2	△1.6
영국	9.1	6.9	7.2	+0.3	2.8	2.9	+0.1
미국	6.3	3.9	3.8	△0.1	2.6	2.6	0.0
아르헨티나	72.4	106.9	118.6	+11.7	88.3	121.3	+33.0
브라질	9.3	5.6	4.9	△0.7	4.7	3.6	△1.1
중국	1.9	2.1	0.5	△1.6	2.0	1.3	△0.7
인도	6.7	4.8	5.3	+0.5	4.4	4.8	+0.4
인도네시아	4.2	4.2	3.7	△0.5	3.5	2.8	△0.7
러시아	13.7	5.4	5.2	△0.2	5.2	5.2	0.0
사우디	2.5	2.5	2.5	0.0	2.6	2.1	△0.5
남아공	6.9	6.0	5.8	△0.2	4.7	4.7	0.0

1

세계경제 전망

① **[총평]** 세계경제 회복세는 다소 약화된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점진적 둔화

- 연초 예상대비 강한 회복세를 보였던 세계경제는 최근 그 회복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 인플레이션은 점진적 둔화 지속

* 세계경제 성장률(%): ('21) 5.8 ('22) 3.3 ('23^e) **3.0** ('24^e) **2.7**
 G20 평균 물가상승률(%): ('21) 3.8 ('22) 7.8 ('23^e) **6.0** ('24^e) **4.8**

- 최근 세계경제의 회복 모멘텀 약화 신호 관찰
 - '22년 이후 주요국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 여건 제약 영향이 점차 가시화
 - 추가적인 정책금리 인상이 없더라도 기존 모기지론 이자율 조정, 기업 롤오버 과정 등에서 기인상된 금리 효과가 당분간 지속 발생
 - 높은 부채, 취약한 부동산 부문 등에 따른 중국 경제 둔화 역시 세계 경제 및 무역·금융 시장의 주요 우려 요인
 - 제조업 PMI가 여전히 정체·위축되어 있고, 견조하던 서비스업 PMI 역시 최근 둔화되는 모습
 - 다만, 첨단산업(tech-related) 위주의 회복 조짐도 있음을 언급
 - 하락하던 에너지 가격도 감소 등 영향에 따라 재차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교적 타이트했던 노동시장 역시 다소 완화되는 조짐
- 소비자물가는 에너지가격 하락 등으로 완화되는 추세이나, 근원 물가의 경우 그 둔화세가 훨씬 느리게 나타나는 모습

② **[성장률]** 세계경제 성장률 '23년 **3.0%** ['23.6월 전망대비 **+0.3%p**],
 '24년 **2.7%** ['23.6월 전망대비 **△0.2%p**]

- 세계경제 성장률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통화긴축 영향으로 당분간 추세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그간 축적된 초과저축이 가계지출을 뒷받침하며 예상보다 견조한 모습이나, 점차 긴축 영향이 가시화되며 성장 둔화 전망
- 유로존·영국은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위축 효과와, 금리인상에 따른 신용 위축 영향으로 '23년, '24년 성장을 둔화
- 중국은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23년, '24년 성장을 둔화

* 성장률 전망('23→'24년, %): (미국)2.2 → 1.3 (유로존)0.6 → 1.1 (영국)0.3 → 0.8 (중국)5.1 → 4.6
(6월 전망대비 증감, %p) (+0.6) (+0.3) (△0.3) (△0.4) (0.0) (△0.2) (△0.3) (△0.5)

③ [물가상승률] G20 평균 '23년 6.0% ['23.6월 전망 대비 △0.1%p], '24년 4.8% ['23.6월 전망 대비 +0.1%p]

- 상당수 G20 국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예상보다 다소 빠르게 둔화되고 있으나 국가별 여건에 따라 차이가 확대되는 모습
- 재화 부문 물가는 꾸준히 둔화되고 있으나, 서비스 부문 물가는 계속해서 유지되는 모습(☞ 노동 및 에너지비용 상승 반영)
- 엔화 절하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영향을 받은 일본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는 물가상승률이 '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
→ 에너지·식품 가격 하락, 정책 긴축기조 등이 주요 둔화요인
- 최근 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년말 까지 중기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2 한국경제 전망

① 한국경제 성장률 '23년 1.5% ['23.6월 전망 수준 유지], '24년 2.1% ['23.6월 전망 수준 유지]

② 물가상승률 '23년 3.4% ['23.6월 전망 수준 유지], '24년 2.6% ['23.6월 전망 수준 유지]

- 우리나라의 '23년, '24년 성장률·물가상승률은 모두 6월 전망수준 유지

3

주요 리스크

□ OECD는 경제전망과 관련하여 하방리스크가 우세하다고 진단

①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금리인상의 역효과 측면에서 불확실성 존재

- 인플레이션 지속 시 긴축 강도가 높아질 수 있고 이는 부채 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소비 둔화, 기업 재무여건 악화, 신흥 시장 부진 등 추가적인 악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

②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의 공급 충격 발생 가능성도 우려

- 석유·석탄·가스 등 에너지 공급 차질 가능성이 아직 높고, 엘니뇨 현상·러·우 전쟁 등으로 식량 가격 상승 우려도 지속

③ 예상대비 급격한 중국 경기둔화 가능성 역시 주요 하방리스크

- 소비자심리 악화, 부동산 시장 문제(낮은 유동성, 높은 레버리지 등에 따른 디폴트리스크)와 함께 과거대비 높은 부채로 재정정책 지원의 범위와 효과도 제한적인 상황

* 중국의 내수성장률이 예상치 못하게 $\Delta 3\%p$ 하락하는 경우, 글로벌 GDP 성장률은 $\Delta 0.6\%p$ 하락하며, 타이트한 글로벌 금융 여건 감안시 잠재적으로는 $\Delta 1.0\%p$ 이상 하락하는 것도 가능

□ 반면, 미국 등 주요국에서의 물가안정 가능성, 팬데믹 기간 중 축적된 초과저축의 소비 전환, 중국 경기부양 정책 등 상방요인도 언급

4

정책 권고

□ OECD는 정책방향으로 인플레이 압력 억제를 위한 제약적 통화정책, 그간 확장되었던 재정의 정상화, 구조적 개혁 노력 등을 권고

① 국가별 인플레이 압력에 따라 정책금리 조정에 차이는 있으나, 주요 선진국 대부분 '24년까지는 금리인하 범위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

* "This is likely to limit scope for any policy rate reductions until well into 2024 in most advanced economies."

- 급격한 통화긴축 영향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정책 결정은 시장과 적절히 소통되어야 하고, 소규모 개방경제 중심으로 주요국 금리인상의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것을 권고

②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재정 확장 + 기후변화·고령화 대응 및 방위비 지출 등은 최근 재정 지출압력을 확대

- 다만, 재정여력 확보노력은 향후 정책수요 충족과 미래 대응력 향상에 기여하고, 수요측 물가 압력 축소를 통해 통화정책 부담을 경감하여 적절한 정책조합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

* "Stronger near-term efforts to rebuild fiscal space and ensure debt sustainability would conserve scarce resources to meet future policy priorities and respond effectively future shocks. This would also improve the near term alignment of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reducing the burden on monetary policy to lower demand pressures and inflation."

- 에너지비용 경감 등 재정정책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축소·정비 필요

* "Many fiscal support measures, including remaining energy support schemes, need to be scaled back and become better targeted on those most in need, particularly vulnerable households inadequately covered by existing social protection systems."

③ 잠재성장률 하락과 고령화·기후·디지털화 대응 등을 위한 공급측 구조개혁 필요 → 생산성 향상, 투자·노동참여 촉진 등 긴요

- 특히, 코로나19와 러-우전쟁 등으로 공급망 안보 중요성이 증가했으나, 효율성 저해 없이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선진·신흥국의 성장·번영을 위한 핵심과제